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신규 재료 부재 속 미중 협상 기대감 지속으로 상승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0일(화) 미국 증시는 신규 재료는 부재했으나, 베센트, 러트닉 장관의 2차 무역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에 힘입어 상승 마감(다우 +0.3%, S&P500 +0.6%, 나스닥 +0.6%).

미중 2차 협상은 희토류 및 반도체 수출 제한 완화 등을 놓고 막판 조율에 있다 보니 예상보다 결과가 늦어지고 있는 양상. 그 가운데 이번 협상이 관세 전쟁의 조기 종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중간중간 “협상 차질(-)진전”을 반복하면서 증시에 노이즈를 주입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 다만, 기존에 상정해왔던 관세 리스크 정점 통과 시나리오는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적절.

이제 시장은 2차 협상 뿐만 아니라, 6월 FOMC에서 연준의 경제 전망과 점도표 변화에 영향을 주는 5월 CPI를 주시할 예정(Fed Watch 상 6월 FOMC 동결 확률은 99%). 부정적인 관세 뉴스플로우의 수위 하락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뉴욕 연은 1년 기대 3.6% → 3.2%)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안도 요인. 그렇지만 보편 관세 및 품목 관세는 발효되고 있다는 점이나, 미국 상무부에서 의류, 전자제품, 가구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에서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점에 주목할 필요.

5월 CPI는 관세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를 재설정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 일단 5월 헤드라인과 코어 CPI의 컨센서스는 각각 2.5%(YoY vs 4월 2.3%), 2.9%(YoY vs 2.8%)로 4월에 비해 오름폭이 확대될 것으로 형성. 클리블랜드 연은의 모델 상 6월 헤드라인과 코어 CPI 예상치(7월 발표)가 각각 2.6%, 3.0%로 6월보다 인플레 상방 압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

이를 고려 시 인플레이션 상방 불확실성은 증시에 잔존해 있을 전망. 동시에 이번 물가 지표에서 쇼크가 나올 시 상단 저항을 받고 있는 미국 증시나, 허니문 랠리 중인 국내 증시에 단기 조정 명분이 될 수 있음에 대비.

전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에 힘입어 장중 1%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지연 소식에 축소한 채로 마감(코스피 +0.6%, 코스닥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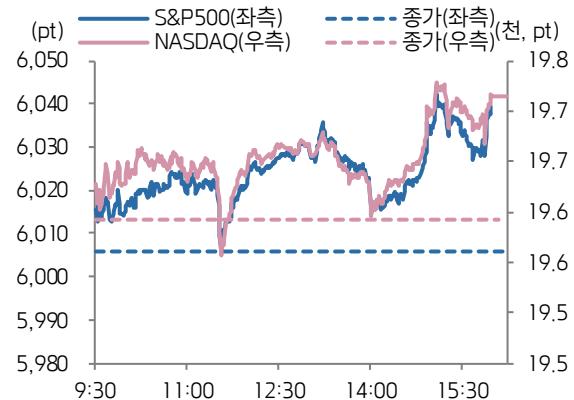
금일에도 미중 2차 무역협상 기대감,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강세(+2.1%), 트럼프-마스크 관계 개선 소식에 따른 테슬라(+5.7%) 강세 등이 상방 요인과 단기 지수 부담, 5월 CPI 경계심리 등 하방 요인이 맞물리며 지수 상단 정체 속 업종 차별화 장세를 보일 전망.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이 지수 방향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입장에서도 단기간에 코스피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단기 가격 부담이 느낄 소지. 실제로 5월 이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9조원 순매수 하는 기간 동안 코스피 주가가 12%대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

(다음 페이지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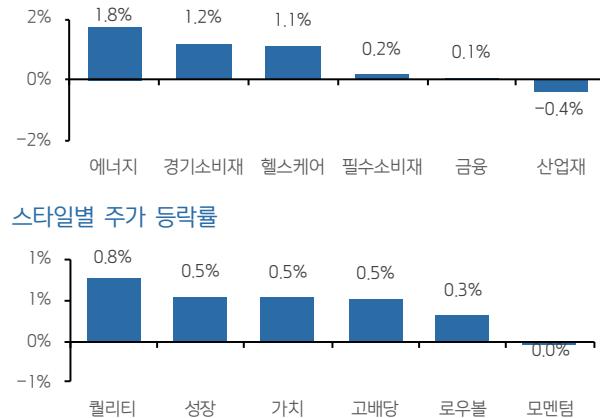
반면, 같은 기간 코스닥에서는 5,500억원 순매수에 불과했으며 코스닥 주가도 7%대 상승하는데 그쳤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 통상 외국인은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플레이를 하는 경향이 존재. 다만, 이들이 한국 증시 전반에 걸쳐 비중 확대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단기적으로 코스닥 대형주 비중 확대를 대안 전략으로 실행할 가능성을 금일 대응 전략에 반영해볼 만 하다고 판단.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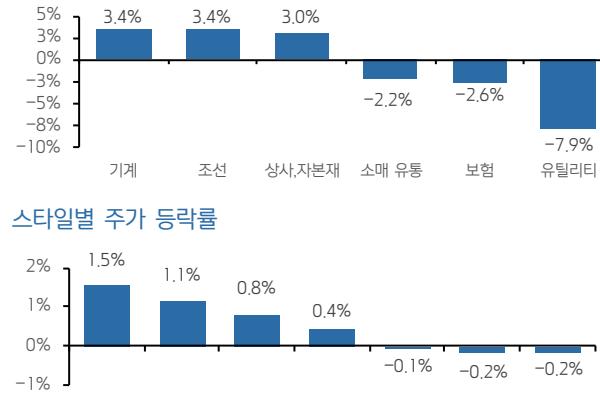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2025년 6월 11일

KIWOOM DAILY 투자전략/시황 한자영 시황/ESG 이성훈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02.67	+0.61%	-18.87%	GM	48.93	+2.09%	-7.62%
마이크로소프트	470.92	-0.39%	+12.15%	일라이릴리	807.19	+4.33%	+4.95%
알파벳	178.60	+1.43%	-5.43%	월마트	97.32	-0.13%	+8.27%
메타	702.40	+1.2%	+20.07%	JP모건	268.60	+0.7%	+13.32%
아마존	217.61	+0.29%	-0.81%	엑손모빌	107.22	+2.14%	+1.49%
테슬라	326.09	+5.67%	-19.25%	세브론	143.35	+1.84%	+1.29%
엔비디아	143.96	+0.93%	+7.21%	제너럴일렉트릭	97.32	-0.1%	+8.3%
브로드컴	244.63	+0.14%	+5.84%	캐터필러	358.57	+0.14%	-0.31%
AMD	123.24	+1.24%	+2.03%	보잉	215.73	-0.82%	+21.88%
마이크론	114.14	+2.88%	+35.8%	넥스트에라	72.81	+1.3%	+3.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871.85	+0.56%	+19.69%	USD/KRW	1,368.00	+1.02%	-7.08%
코스피200	384.79	+0.47%	+21.07%	달러 지수	99.05	+0.12%	-8.7%
코스닥	771.20	+0.91%	+13.71%	EUR/USD	1.14	+0.03%	+10.34%
코스닥150	1,258.31	+1.59%	+11.37%	USD/CNH	7.19	+0.08%	-2.03%
S&P500	6,038.81	+0.55%	+2.67%	USD/JPY	144.87	+0.21%	-7.84%
NASDAQ	19,714.99	+0.63%	+2.09%	채권시장		가격	DTD(bp)
다우	42,866.87	+0.25%	+0.76%	국고채 3년	2.385	-1bp	-21bp
VIX	16.95	-1.22%	-2.31%	국고채 10년	2.827	-3.5bp	-4.4bp
러셀2000	2,156.41	+0.56%	-3.31%	미국 국채 2년	4.018	+1.5bp	-22.4bp
필라. 반도체	5,242.50	+2.06%	+5.27%	미국 국채 10년	4.470	-0.4bp	-9.9bp
다우 운송	15,171.08	+1.3%	-4.56%	미국 국채 30년	4.927	-1.2bp	+14.6bp
상해종합	3,384.82	-0.44%	+0.99%	독일 국채 10년	2.523	-4.4bp	+15.6bp
항셍 H	8,767.36	-0.15%	+20.27%	원자재 시장		가격	DTD(%)
인도 SENSEX	82,391.72	-0.06%	+5.44%	WTI	64.98	-0.47%	-6.96%
유럽, ETFs				브렌트유	66.87	-0.25%	-10.41%
Eurostoxx50	5,415.38	-0.11%	+10.61%	금	3,343.40	-0.34%	+23.06%
MSCI 전세계 지수	897.51	+0.42%	+6.68%	은	36.64	-0.42%	+25.31%
MSCI DM 지수	3,934.94	+0.4%	+6.12%	구리	490.00	-0.51%	+21.69%
MSCI EM 지수	1,201.13	+0.62%	+11.68%	BDI	1,691.00	+3.55%	+69.61%
MSCI 한국 ETF	66.16	-0.48%	+30.01%	옥수수	438.75	+1.21%	-6.4%
디지털화폐				밀	534.50	-1.38%	-6.15%
비트코인	109,979.61	+1.11%	+17.36%	대두	1,057.75	+0.17%	+2.22%
이더리움	2,774.20	+7.08%	-17.1%	커피	353.05	-1.77%	+16.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10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